

업계소식

제2회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개최



해외 건설협회와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가 주최하고 국회건설교통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제2회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이 지난 11월3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나라 방문 시 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 건설 산업의 높아진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에 많은 자부심을 느꼈다”며 해외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해외건설 중흥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건설한국의 위상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간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우리나라 해외건설이 최근 들어 중동건설 붐에 힘입어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나라살림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불굴의 개척의지와 도전정신으로 해외건설현장을 누빈 해외건설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실인 만큼,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나라 해외건설이 21세기를 주도하는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과 동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과 석탑산업훈장 각 1개와 3개의 산업포장, 5개의 대통령표

업계소식

창, 5개의 국무총리표창, 20개의 건설교통부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로는 신

윤하 국제산공(주) 대표가 산업포장을, 조총래 (주)정풍개발 전무가 건설교통부장관표창을 받았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수상 내역

부문	성명	회사명	직위	비고
산업포장	신윤하	국제산공(주)	대표이사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사
건설교통부장관표창	조총래	(주)정풍개발	전무	

영광의 설비건설인들 - 수상자 프로필

산업포장

국제산공(주) 신윤하 대표이사



국제산공(주) 신윤하 대표이사는 43년간 플랜트 설비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27년 동안 설비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조선업계에 사용되는 내화 및 방음용

수입 단열재를 연구개발,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한 열병합 발전소의 축열조 보온시공법에 대한 특허보유 등 플랜트 기계설비 단열시공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경영혁신,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등 철저하고 성실한 품질시공관리를 실행함으로써 플랜트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신윤하 대표이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사, 플랜트 협의회 위원장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저가하도급심사 의무제도 법제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 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

액 확인서 발급 추진 등 플랜트 건설 산업 환경 발전 및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표창

(주)정풍개발 조총래 전무



(주)정풍개발 조총래 전무는 지난 22년 동안 국내외 각종 발전소와 석유화학 등 다수의 플랜트 공사 수행 경험을 축적했다.

1994년 미국 GUAM CABRAS 디젤발전소 건설소장으로 근무하고 2002년 나이지리아 CCGP GAS GATHERING PLANT 공사 지원 및 관리감독, 2006년 필리핀 MALAYA 화력발전소 건설소장으로 재직하며 해외플랜트 건설의 경험을 쌓았다.

또한 호남 화력발전소, 서울 화력발전소 등 국내 각종 플랜트 공사를 성공리에 준공 등 우리나라 플랜트설비공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업계소식

대한전문건설협회 8대 회장에 박덕흠 원화건설 대표 선출



대한 전문건설협회 제8대 회장에 박덕흠 원화건설 대표가 당선됐다.

전문건설협회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회장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박 신임 회장은 연세대 공과대학원 토목공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서울산업대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박 신임회장은 이날 소견발표를 통해 “21년 전 태

동한 전문건설협회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명한 협회, 화합하는 협회, 힘이 있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 및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사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06년 11월 1일부터 3년 간이며 지난 11월 3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

최상홍 한일MEC 회장, ‘한국 중흥엔지니어 60인’에 선정



서울 대 공대는 지난 10월 22일 개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최상홍 한일엠이씨 회장(대한설비건설협회 고문), 윤중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태준 포스코 초대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김쌍수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등 60명을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로 선정했다.

선우중호 선정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은 “한국의 기적 같은 경제성장 뒤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엔지니어들이 있었다”며 “전 세계 사업현장에서 첨단 과학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오늘날 이들의 업적을 돌

이켜 보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엔지니어상을 정립하기 위해 60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작업을 총괄한 허은녕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학력, 나이, 출신에 상관없이 산업발전 기여도를 중심으로 선발했다”며 “관계 기관, 원로 엔지니어들로부터 1,470명을 추천받은 뒤 3달여에 걸친 심사 끝에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다.

선정된 60인은 광업·석탄, 전력·원자력, 섬유, 화학, 기계, 항공우주, 조선, 재료, 건설, 건축설계, 전자, 정보통신, 의료기기, 생명공학, 산업공학, 식품 등 16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시상식은 12월 5일 서울대 공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린다. ●